

11.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? =>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

Q. 그렇다는 말인가/기대한대로 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말인가? => 요한과 예수의 생활상 비교(18-19 절)

1. 대중적 기대—왕, 힘, 권력=> 지도자 바꾸기 (체제는 그대로)
2. 근본적 변화—[주의 이름으로] 오실 이 (ὁ ἐρχόμενος, 3:11; 11:3; 21:9; 23:39)

그리스도(메시아)의 하신 일(τὰ ἔργα τοῦ Χριστοῦ)이란?

- “그리스도”(1 장; 11:2; 16:16...)=> 1-2 장을 제외하면 처음 등장, 그리고 베드로 고백(16:16)
- 예수가 한 일은? 가르치고(5-7 장), 병고치고(8-9 장), 제자/예수공동체 만드는 일(10 장)
- 이게 그리스도가 할 일인가? (뭘 좀 더 그럴싸하게, 짤하게 할 수 없나? 3:11-12) => 요한도 옥에서 빼내고

이사야 35 장 읽기 (배경: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탈출. 시적 언어)

³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, 두려워 말라. 보라 너희 하나님 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
⁵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⁶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

마 11:5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

- Isaiah 35:5-6 소경, 귀머거리, 저는 자/앓은뱅이(χωλός), 병어리=> ⁸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 (사 43:8) => 사 61:1
- 소경, 앓은뱅이, 문둥이, 귀머거리, 죽은 자와 가난한 자(πτωχοί)는 같은 사회적 계급(category).
-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=> 하느님 나라(천국)이 불편하냐? 지금 세상(지배이데올로기)이 그대로 지속하길 바라냐?
- 예언자=> 신의 대언자=> 지배체제에 대한 대안/대항

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(βιάζεται, suffer violence, violently attacked)

1. 사람들의 열심?? 표준새번역; NIV <<눅 16:16
2. 지배체제의 반격/저항=>
 - 헤롯(3:2, 7-10; 14:1-12), 악마(4:8-11), 귀신들(8:29), 종교 지도자(9:1-13), 군중(9:24). 공동번역; NRSV =>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(마 23:13)
 - 세례요한 때부터=> 감옥에 갇힘

예수에 대한 두 가지 반응

A. 거부반응(11:16-24)

- 무관심=> 요한과 예수(비유 속의 아이들)의 말/(놀이)에 무관심
- 회개치 않음=> 생각/마음씀/가치관에 변화가 없다.
-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(11:19) => 말/생각, 그리고 행함/열매

B. 예수와 함께 (11:25-30)

- 어린아이(νήπιος, infants) => 세상에 물들지 않음. 여기서는 소수의 마태복음 공동체(4:18-22; 10:1-4, 13). 지혜와 명철=> 세상의 지혜/명철(이데올로기/가치관), 하느님의/을 대적(사 29:9-14; 단 2:1-13).
- 수고, 무거운 짐=> 로마제국/지배체제 속에서 “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들”(9:36). “those who are burdened by life under Roman imperial control and its unjus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tructures” (Warren Carter, *Matthew and the Margins*, 259).
- 멍에=> 지배/다스림(cf. 에레미야 27-28 장//LXX 34-35 장). 예수의 멍에=> 예수의 지배/지도(cf. 시 2:3; 램 5:5) => 체제, 생각/가치관의 변화. 멍에를 바꾸어 진다? => 회개
- 나는 온유하고... (겸손?) => 마 5:3-6 가난, 애통, 온유(πραεὺς=>ⲡⲓⲛⲏ, afflicted), 굶주림(hunger)은 로마 제국—어떤 종류의 독재정치—의 피해상황. 예수 왈: 나도 너/회와 같은 처지에 있다.

생각해 보기

1. “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지(σκανδαλίζω) 않는 자는 복되도다”(11:6). 예수 때문에 꺼림직한 것은?
2. 내게 있는 명에는? (=> 예수의/신앙인의 눈으로 보기)